

선한목자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축일에 총원장의 축하 인사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의 선교가 더욱 필요한 이 시기에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길 아래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며 생명을 주는 사랑을 증거하면서 교회와 세계의 필요에 단순하고 겸손하며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오신 모든 빠스도렐라에게, 특히 수도 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자매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총원장 아민따 사르미엔토

빠스도렐레에게 한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천상 목자의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어린 아드님을 사랑하듯이, 선한 목동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

수녀는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선교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 시기에 더 수녀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듣는 것 같습니다. 사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수녀의 말은 듣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

오, 오로지 항상 예수님께서서 원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고 겸손하며 용기를 갖고 힘 있게. 자, 마리아처럼! 선한목자예수님의, 구원자의 무시무시한 수난을 동반하는 강한 여인. (...)

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마리아, 개인적인 성화에서, 사도직에서, 수도회의 성장에서. 수도회는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

주님께서 언제나 기쁘고, 평온하고, 겸손하고 신앙으로 함께 여러분을 동반하시도록 축복합니다.

(AAP 1962, 189-190.194.210.213)

Roma 03/09/2021